

# 여름 휴가, 익산에서 문화체험 하러

익산시가 7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특별 할인 혜택을 마련해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다음달 2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과 보석박물관 등 지역 문화시설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 코로나19 극복 힐링 음악회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에서 다음달 1일 오후 7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힐링 음악회인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야간공연'이 개최된다. 룩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가수 최성수, 가야금 박달님 등이 출연해 공연을 펼치며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미륵사지석탑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7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맞아 행사 '다채'

### 내달 2일까지 지역 문화시설서 프로그램 마련

로 기대된다.

#### 여름밤 음악회 '산책음악감'

익산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다음달 1일 오후 8시부터 여름밤 음악회 '산책음악감'이 열린다. 싱어송라이터 '빈칸', 그룹 '큐오스'와 특별게스트가 출연하며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전자 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 띄어 앉기 좌석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문화체험

동산여울휴먼시아 207동 1층에 위치한 꿈드림작은도서관에서는 '클래식 기타와 함께 하는 지구촌 음악여행'을 실시한다.

#### 도서는 2배로, 영화는 5천원으로

모현·영동·마동·부송·황등 시립도서관에서는 29일 '공공도서관 두배로 day'를 진행해 당일 1인당 도서를 2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익산 CGV, 롯데시네마에서는 29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할인된 가격인 5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일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 부안 박선옥 명창, 전북도

###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인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박선옥(여, 부안군 부안읍 부종로) 명창이 전북도무형문화재 제49호 가야금 병창 예능 보유자로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박선옥 보유자는 14세에 부안 국악원에 입문해서 판소리를 배웠으며, 이후

1974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박귀희(1921-1993, 본명 오계화)에게 정식으로 가야금 및 병창을 배웠다. 수궁가와 흥보가를 비롯해 적벽가·심청가·춘향가·눈대목 등 다양한 가야금 병창을 전수받았다.

가야금 병창은 조선말 판소리 명창들 사이에서 놀이 삼아 가야금 반주에 판소리를 얹어 불렀다는 견해와 가야금 산조 창시자이며 판소리의 명인이었던 김창조가 처음 연주했다는 견해가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가야금 병창이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자연사박물관,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곤충과 함께하는 텃밭 만들기'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큰 호응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은 전주지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와 함께 전북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곤충과 함께하는 텃밭 만들기'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은 5개 기관,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는 전북대 캠퍼스 텃밭에서 지리는 채소를 관찰하고, 자연사박물관에서는 텃밭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과 먹이 등을 알아보는 체험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사람과 자연, 생태계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먹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됐다.

박진호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이



도심 속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내달 5~19일 '한여름 밤의 가족공연'

국립무형유산원은 온가족이 함께 무형유산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의 가족공연'을 오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유산원 열수마루 공연장에서 연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5일에는 창작인형극 '문동왕자 가 무대에 오른다. 남사당놀이의 꼭두와 고성오광대의 문동왕자가 만나 아픔을 이겨내고 지구별의 왕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담는다.

12일에는 춤추는 판소리 동화극 '영감이 하

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공연이 진행된다. 판소리, 민요, 아가페라, 왈츠, 삼바 등 다양한 음악과 춤, 악기를 만날 수 있다.

19일에는 국악 뮤지컬 '제비 씨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선보인다. 판소리 흥보가에 등장하는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산타클로스가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모험을 그린다.

전석 무료인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뉴시스

## '뮤지컬 놀이, 흥미 유발'... 임실 창작뮤지컬 '호응'

### 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일환 진행

#### '배우다 액티스쿨' 뮤지컬 강사 초빙

#### 12월 20일까지... 창의력 향상에 도움

임실군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창작뮤지컬 프로그램을 진행,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창작뮤지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우다 액티스쿨' 뮤지컬 강사를 초빙하여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 까지 진행된다.

창작뮤지컬은 '뮤지컬 배우에게 배우는 뮤지컬놀이, 공연만들기'라는 주제로, 진로개발과 의사소통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친구들과 친해지는 놀이수업을 시작으로 연기, 노래, 춤을 배우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창작뮤지컬은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하기 힘들었던 문화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불어 창작뮤지컬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성취감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이



임실군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창작뮤지컬 프로그램을 진행,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 참여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험을 접하기가 쉽지 않는데 창작뮤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무척 유익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창작뮤지컬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